

야간·휴일에도 문을 여는 ‘달빛어린이병원’ 호평

광산구 센트럴병원에 2호 개소 1호 병원, 야간 평균 30명 이용 휴일엔 하루 114명...“안심 의료” “취약시간 소아 의료공백 해소”

광주에 달빛어린이병원(심야어린이병원) 2호가 운영을 시작했다.

광주시는 29일 광산구 신가동 광주센트럴병원에서 강기정 시장과 고길석 광주센트럴병원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최지현 광주시의원, 최정섭 광주시사회장, 병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식’을 열었다.

광주센트럴병원은 전날인 28일부터 광주시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365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진료를 제공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시~오후 11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9시, 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다.

이로써 광주시에는 남구 광주기독병원과 광산구 광주센트럴병원 2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된다.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광주센트럴병원은 소아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광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365일 소아 전문진료를 제공, 의료 취약시간대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해소와 아이와 부모의 의료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증 소아 환자를 치료,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9월 보건복지부가 도입했다. 평일은 최소 오후 11시, 휴일은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

그러나 활성화 되지는 못했다. 저조한 수가 지원으로 병원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몇몇 지역에서 시도했으나 얼마 안가 운영을 중단하기 일쑤였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시가 지난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한다고 했을 때 우려가 많았다.

더욱이 광주 달빛어린이병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년 365일 지정까지 전문 의료진이 직접 진료를 하는 방식이었다. 휴진은 1년에 3번 뿐이다. 조건 자체가 열악

해서 누가 나설까 싶었지만 광주는 강수를 던졌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된 곳에는 연간 15억 상당의 광주시의 자체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몇개의 병원이 나섰고 최종적으로 광주기독병원이 1호로 선정돼 지난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리고 5월 현재, 광주 달빛어린이병원은 대성공을 거뒀다. 지난해 9월부터 야간 이용 환자는 하루 평균 30명이고, 휴일에는 환자가 더욱 몰려 하루 평균 114명이 방문할 정도였다. 총 방문 환자는 1만5673명에 달했다.

광주시의 성공에 고무된 다른 지자체들도 연일 광주를 찾아 벤치마킹했다. 서울과 경기, 전북 등 7곳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해왔다.

전남 역시 발빠르게 움직여 지난해 12월 순천에서 1호 달빛어린이병원을 개소하는데 이어 3월에는 광양에서 2호 병원을 문을 열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국회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야간휴일 수가 가산뿐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다. 총예산은 45억원이다.

이에 광주에서도 1호 병원이 개원한 지 불과 8개월만에 2호 병원의 문을 열게 됐다.

이날 개소한 고길석 광주센트럴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미래 주인공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결심했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광주에서 자랄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온 힘을 다하겠다. 함께 해준 센터장 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진의 사명감으로 큰 결단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경증 소아환자들이 늦은 저녁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고 소아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와 부모 모두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강기정 광주시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고길석 센트럴병원 원장과 직원들이 29일 광산구 광주센트럴병원에서 ‘광주시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식’을 갖고 의료 시작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시민 곁에서 더 가까이 문화예술 가치를 실현합니다

문화예술은 누구나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주문화재단이 여러분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일상 속 문화 즐기기

국제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9.21.(토)~22.(일) 비엔날레, 5·18민주광장 9.28.(토)~29.(일) 금남로 일대

호남 최대 국제아트페어 '광주국제미술전람회 (아트·광주·24)' 10.10.(목)~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공간 속 예술 스머틀기

공연장상주단체 '우수레퍼토리' 놀이패션명 '어린이환경경유지컬 삼총사의 대모험' 6.6.(목) 11:00, 14:00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나빌레라 예술단 '춤, 춤향, 歌, 천하' 6.7.(금) 19:30 북구문화센터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 '들어볼래? 클래식동화피터와 늑대' 6.14.(금) 19:30 서구문화센터 타악그룹 얼쑤 '樂의路(락의로)' 6.15.(토) 17:00 광산문화예술회관 빛고을심포니 오케스트라 'Sound of Orchestra' 7.9.(화) 19:30 남구문화예술회관

전통수정문화체험 '회화낙 화경루' 회경루 풍류기행(전통체험·탐방, 공연) 9.14.(토) 15:00~18:00 9.21.(토) 15:00~18:00 9.28.(토) 15:00~18:00 10.12.(토) 15:00~18:00 회경루 야행(夜行) 10.5.(토) 17:00~20:00 전통체험버스 및 전통공연

전남도 “국립의대 미선정 지역 보완 대책 강구”

도정자문협서 갈등 봉합 나서 “균형·상생 도민 만족방안 도출” 순천시·순천대 여론조사엔 유감

전남도가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순천시와 순천대가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29일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열린 동부권 도정자문협의회 상반기 정기회를 통해선 공정한 공모 추진을 약속하며 미선정 지역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동서갈등 봉합에도 나섰다.

순천시와 순천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화면접을 통해 전남 동부권 도민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은 전남도의 단일의대 공모 방식을 신뢰하지 않으며, 97.5%가 순천대 의대 신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남도의 단일의대 선정 공모

인지도’ 관련 문항에 대해선 53.7%가 ‘모른다’고 답한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 사안에 대한 인지도보다 해당 지역민으로서의 무조건적인 불신이 높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이에 전남도는 설문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이날 열린 도정자문협의회에서 미선정 지역에 대한 대책 및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며 갈등 봉합에 적극 나섰다.

조석현 의대기획팀장은 “어떤 지역이 선정되더라도 지역균형 및 상생발전 차원에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용역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미선정 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체계 및 각종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